

화순군, 국제노화심포지엄 개최

올해 15번째...건강 노화 전략·대응방안 모색 “항노화 분야 국책 사업 발굴 추진해 산업 육성”

화순군이 ‘뉴노멀 시대의 건강 노화 (Healthy Aging in the New Normal)’를 주제로 노인 건강 증진을 모색하는 국제노화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노화심포지엄은 23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캠퍼스 의생명과학융합센터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노화 관련 국내외 전문가, 대학, 학회, 보건 의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 고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최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더 나은 건강 노화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전 전체 세션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건강노화’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이 있고,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건강노화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의학·공학’과 ‘건강노화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영양·간호·복지’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건강한 노후 사회 만들기 등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 의견을 주고받았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지속적인 노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노화 관련 상호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책 사업 발굴과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 기반을 다져왔다”며 “심포지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산학연이 협력해 항노화 분야 국책 사업을 발굴 추진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와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후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배 디저트·커피바리스타’ 평생교육강좌 운영...다음달 25일까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나주시가 전남도립대학교와 함께 지역민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 간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나주배로 파티셰 스쿨’,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강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강좌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에서 각각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남도립대에서 교육비 전액을 부담한다.

전남도립대는 앞서 지난 해 1월 관·학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특성화 교육 사업비 지원

을 나주시와 협약한 바 있다. ‘나주 배 파티셰 스쿨’ 과정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 가공품 상업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10여종의 배 디저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카페 취·창업에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은 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론·실기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은 나주시평생학습관에서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기동취재본부



뽀로로·캐리슈퍼윙스까지 인기 캐릭터 총집합 전국 최초 곡성심청어린이축제 개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3총사가 곡성군에서 신나는 공연을 펼친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곡성군 삼진강기차마을에서는 제21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개최된다. 전국 최초로 10월에 열리는 어린이대축제인만큼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먼저 29일 축제 개막 공연으로 <캐리와 친구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음악, 노래, 율동 등을 결합한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노래와 율동을 따라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캐리와 친구들의 공연은 출연진들이 수시로 객석에 내려와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다.

30일에는 <뽀로로 심어롱쇼>를 만나볼 수 있다. 뽀로로 캐릭터는 초통령의 원조격인만큼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뽀로로 공연 역시 심어롱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연에 흠뻑 빠져들기에 좋다.

축제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슈퍼윙스 심어롱쇼>가 공연된다. 슈퍼윙스는 비행기 캐릭터들의 문화탐험 어드벤처를 다룬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다.

2014년부터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요즘 아이들 둔 가정에는 슈퍼윙스 장난감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귀농귀촌 메카’로 든다...9년간 4000명 유입

10개월 체류형 프로그램...빈집 월 10만원 임대 등

구례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2017년 구례군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년 동안 총 2,831가구 4,001명이 구례로 귀농귀촌했다.

2013년 360명에서 2014년 336명, 2015년 461명, 2016년 685명, 2017년 251명, 2018년 386명, 2019년 526명, 2020년 523명, 올해 9월까지 473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지난 9년간 귀농귀촌한 인구수는 구례군 8개 읍면 중 3개 면 단위(문척면 1,270명·간전면 1,492명·용방면 1,453명) 인구가 맞먹는 숫자다.

이처럼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월 10만원에 빈집을 임대하는 구례정착보금자리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과격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일명 ‘귀농사관학교’로 불린다. 매년 귀농귀촌 희망자 35가구를 선발하고 10개월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이해와 농촌적응, 농업창업 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농촌정착을 돕는다.

군은 서울시, 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은퇴자 대상 교육도 추진 중이다.

‘구례정착 보금자리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한 공모사업으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빈집소유

자에게 리모델링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1년간 보증금 2백만에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구례에서 살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례군은 현재 보금자리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1~6개월간 체험마을에서 임시거주하며 마을 이장님과 농촌이해, 영농실습, 지역탐색, 농촌체험 등 농촌 전반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민과의 소통 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집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은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운저장고, 하우스설치, 농기계 구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및 농업창업 용자지원 사업으로 연이율 2% 금리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까지, 주택 구입 또는 신축자금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도시민 상담, 박람회 참가 홍보, 빈집정보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도 벌이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선 7기 동안 구례 전체 세대의 12%, 인구의 8%에 달하는 귀농귀촌인을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격적인 지원책들을 추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비상대비 태세 확립 을지태극연습 추진

담양군은 상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연습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할 예정이며,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되 비상시 기본임무를 익히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연습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훈련

을 진행한다.

담양군과 관내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국지도발 상황 대응 연습 ▲기관별 전사전환절차 연습 ▲비상사태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 연습 ▲총무사태 조치사항 토의형 연습 등을 통한 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한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심청

2021.10.29. - 31. 일

곡성삼진강기차마을

YouTube 곡성어린이대축제